제2절 민선6기 도정 운영방향

1. 도정의 여건
2. 도정운영 중점방향

제2절 민선6기 도정 운영방향

1. 도정의 여건

전남은 지역 주력산업인 석유화학, 철강, 조선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금리, 저소비 현상이 장기화되는 뉴노멀(New Normal) 현상 고착화와 중국과 신흥국과의 경쟁 심화, 엔저현상 지속 등으로 인해 갈수록 영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새로운 활력을 모색해야 했다.

FTA 체결확대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 가속화는 지역 농수산업의 생산액 감소를 불러와 농어업인의 생활은 날로 고달파져 저비용·고소득 농어업구조로 전환이 필요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층 유출로 지역의 생산가능 인구비율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였다.

8년째 공사가 중단된 목포~보성간 남해안철도,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및 호남선 KTX 2단계 착공 지연 등 대형 SOC사업의 부진과 무안공항 활성화 저조는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관광객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반면,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할 16개 공공기관 중 14개 기관의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있었고, 글로벌 에너지기업인 한전 이전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희망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농수산 분야에서는 FTA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대 중국 수출기회 확대를 모색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귀농·귀어·귀촌가구도 꾸준히 증가하여 위기에 처한 농어촌의 새로운 희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광주하계U대회 개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등으로 남도의 문화관광의 부흥을 이룰 호기도 마련되었다.

특히, 2012여수박람회와 2013순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여수 및 순천지역 관광객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었고, 전남 관광자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국제농업박람회와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가 2015년 10월 예정되어 있었다.

2014년 7월, 10년 만에 도지사가 바뀐 전남 도정은 이낙연 지사를 중심으로 전남의 미래를 바꾸는 밑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하는 등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는 발빠른 행보를 시작하였다.

2. 도정운영 중점방향

이낙연 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전임 도지사가 펼쳐온 성과를 이어받고 한편으로는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도민이 염려해 온 F1대회, 사파리아일랜드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처리방향을 마련하였다.

피폐한 전남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민선 6기 전남 도정을 이끌어 갈 철학과 비전을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으로 선포하고, 도정의 당면 목표를 활기, 매력, 온정으로 정하고 소통과 공개, 배려의 도정을 펼치겠다고 발표했다.

도정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① 활기있는 지역경제 ② 소득높은 농축어업 ③ 매력있는 문화관광 ④ 온정있는 도민 복지 ⑤ 소통하는 창의 도정 등 5대 도정방침을 확정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8대 중점과제와 2대 브랜드 시책을 선정해 우선 추진하고 있다.

2-1. 청년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일자리창출 목표를 4천개로 설정하고, 혁신도시 이전기관 및 연관기업 유치, ICT 전문인력 양성·공급 등 지역특성에 맞는 국내·외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한다.

지역인재 채용을 15%로 확대하고, 선(先) 취업 후(後) 진학을 확산하며, 청년인턴제 지원 확대 및 산업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나간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 창업보육센터, 농업분야 청년창업가 창업·창직 활성화, 기업가정신 함양 등으로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2-2. 지역경제 성장동력 기반 확충

성장한계에 직면해 있는 지역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철강·조선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광양제철과 여수산단 간의 부산물 교환용 해저배관 구축으로 신산업 창출 및 운송비 절감을 통한 주력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12천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은 유망 중소기업, 강소기업 등 성장단계별로 육성하며, 기술개발, 기술인증 등을 지원하여 FTA 등 무한 경쟁에도 생존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물산업 육성을 위해 화순 백신산업 특구를 국가 백신산업 집적지로 조성하고, 국제 수준의 천연물 의약품 원료생산 시설 구축과 위탁생산 지원으로 지역 특산자원 산업화와 천연물신약 개발도 촉진한다.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과학 로켓개발 연구개발과 국가 비행종합시험장 구축하고, 영광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를 친환경 미래자동차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2-3. 빛가람혁신도시 및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

빛가람 혁신도시 조기활성화를 위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이전기관과 협력을 통한 연관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하며, 한전과 협력하여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ICT기업 유치도 적극 추진한다.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구성지구에는 호텔 및 리조트, 시니어타운, 골프장을 조성하고, 삼호지구에는 리조트, 허브단지, 골프장, 테마파크, 마리나 등을 조성하며, 삼포지구에는 자동차 튜닝밸리 조성 등 지구별 선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4.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 농업 육성 및 FTA 대응

신뢰받는 유기농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여건 조성과 유기농 단지 조성을 확대하고 저비용 유기농 실천기술의 농가 보급과 실용화를 추진한다.

쌀 중심에서 고소득 품목으로 인증품목을 다양화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공동물류시스템 구축 및 프랜차이즈점과 학교급식에 유기농 쌀 공급 확대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확보한다.

FTA 확대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보전을 위해 대 정부 정책과제를 발굴해 지속 건의하고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FTA 대응 종합대책도 마련해 추진한다.

2-5. 지속 가능한 바다환경 조성

양식어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장기간 이용으로 저질오염이 심화된 양식어장에 대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식어장 정화사업 실시,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 지역의 마을어장, 조업어장, 종묘발생장에 대한 어장바닥 경운, 객토, 준설 등을 실시하고, 해안가 및 유·무인도서에 버려진 각종 해양쓰레기 수거를 추진한다.

환경친화형 양식환경 조성을 위해 고밀도 및 친환경 부표의 사용 확대, 어류의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 사료찌꺼기에 의한 양식장 저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배합사료를 공급한다.

효율적인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수산생물의 서식환경 조성에 필요한 인공어초 시설, 수산자원 증강을 위한 지역별 해역별 특성에 맞는 수산종묘 방류, 갯녹음이 심한 연안어장 복원을 위한 해중

림 조성, 수산자원량에 적합한 수준으로 연안어선 감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6. 관광여건 변화에 부응한 대대적 관광객 유치

호남선 KTX 개통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88고속도로 확장 등과 연계한 지역 관광상품 개발 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관광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로 지역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특히 연간 6백만명 이상 방한하는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안공항 정기성 전세기 취항 확대, 국제 크루즈선의 입항 유치와 기반시설 정비, 도내 주요 관광지를 원스톱으로 여행할 수 있는 관광안내체계를 구축 등 관광인프라 확충은 물론 도내 중국 관련 문화유적 정비해 나간다.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남 동부권에 도립미술관 건립과 농어촌지역에 '찾아가는 영화관'을 조성하고 도민 누구나 체육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체육기반시설 조성과 생활체육 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2-7. 온정있는 도민복지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체계도 확립해 나간다.

농어촌지역의 취약한 복지 및 의료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개선과 권역응급센터 확충, 광역치매센터 유치, 응급의료 이송용 헬기착륙장 건설 등도 추진한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오지지역 주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한 '100원 택시'도 운영한다.

여수산단과 광양제철 등 대규모 오염원 배출이 많은 동부권 지역의 환경문제 해소를 위해 동부지역본부 겸 환경국을 순천에 신설하여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농어촌과 섬 지역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도 지속 확충해 나간다.

2-8. 소통과 청렴으로 도민신뢰 회복

지역 상호간 교류와 협력 확대로 공동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그동안 단절되었던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복원하고, 호남권 3개 시·도 및 경북·경남, 서울·경기 등 타 시·도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업인, 근로자, 소상공인 등과 현장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해 나가고, 동부권 주민의 편의를 위해 동부지역본부의 기능을 강화해 실질적인 제2청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고강도 청렴도 제고 대책 추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한다.

2-9. 민선6기 2대 브랜드 시책 추진

미래 세대에게 남겨 줄 유산이자 가장 경쟁력 있는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인 섬과 숲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가고 싶은 섬 가꾸기」와「숲속의 전남 만들기」시책을 추진한다.